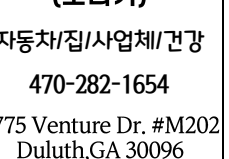


안 그래픽스 인쇄 · 사진 ·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ahngraphix@gmail.com	구나영 보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새로이 65세 되시는 분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 구나영 아가다 678-665-4228	리 장례식장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 넷 770-622-2525	PIWC Group Agency 자동차 · 집 · 사업체 · 종업원 상해 보험 장인옥 베드로 404-644-8658	SB 건축 & 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철구조물 수리 제작 방성호 크레센시오 678-599-0200	오즈 냉동 에어콘 · 히팅 · 냉동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
 이창호 보험(바오로) 자동차/주택/메디케어 678-910-0884 3483 Satellite Blvd Ste.310 S Duluth, GA 30096	 스마일원치과 김세희 소화테라사 김상운 요셉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203, Suwanee, GA	 브라이트 스마일즈 잔스 크릭 치과 www.brsmilestdmd.com 470-719-0213 7775 McGinnis Ferry Rd Ste 202, Johns Creek, GA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SONAMOO 소나무 Auto Repair 리버밴드 오토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Office 770-623-5940 3322 Peachtree Industrial Blvd, Duluth, GA 30096	 미소치과 남상우 시몬 남수진 세실리아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미래의 대비와 준비 / 학자금 상속 / 은퇴 / 생명보험 / IRA 장기요양보험 / 오바마의료보험 오선주 테라사 보험 714-579-5422	 Peachtree Physical Therapy 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정토니 안토니오	 FARMERS INSURANCE 로렌 배 보험 (모니카) 자동차/집/사업체/건강 470-282-1654 3775 Venture Dr. #M202 Duluth, GA 30096			
 State Farm 자동차, 주택, 생명, 비즈니스, 건물, 종업원 상해 보험 송규형 루카 770-361-5655 5224 Buford Hwy NE Ste B Doraville, GA 30340	 운동상해(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더조은 척추 박찬규 레오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배웅자 루시아 보험금융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요양보험 뮤추얼펀드 678-665-5400 3720 Davinci Court, Suite#150 Peachtree Corners, GA 30092			
 Better Homes and Gardens REAL ESTATE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	 kw KELLER WILLIAMS 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 Juliana OH 678-908-4945	 CEO/Broker 마크 우 공인부동산 Million Realtors INC 770-885-3276 주택전문/부동산 투자25년 경험 3255 Lawrenceville 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SINCE 1999 VINEYARD REALTY · 시니어 주택전문 (Seniors Real Estate Specialist) · 사업용 건물 · 토지 조셉 김 678-361-6230 켈리 김 770-634-5646	 Pinehill Realty 조앤리 아네스 부동산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	 만천홍 명품중식 레스토랑 신자분 5인이상 10% 할인 우대 770-454-5640 매주 월, 화요일은 쉽니다.			
 정승욱 미카엘 변호사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무료상담 770-495-9994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	 오약국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10820 Abbotts Bridge Rd, #240 오민환 파비아노	 Weardot! 로사리오 평생대학 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찾아보세요 · 정경다리 회원 모집합니다. (차세대 임원 및 봉사인원 필요합니다) · 강사문의 환영합니다. 은전 베네딕토 404-308-0322 서미영 아네스 404-610-005			
 교통사고 상해 이종원 미카엘 변호사 무료상담 678-622-8829 jwlee@jwleelaw.com 3483 Satellite Blvd #211S, Duluth (파라마켓 맞은편)	 Fairway Home Loan *주택융자 *상업융자 최윤석 융자 404-578-1426 3483 Satellite Blvd Ste 201S, Duluth, GA 30096	 PC Paints LLC 하우스(IN/OUT) & 오피스 페인트 박효만 스테파노 470-495-4016 pcpaintsllc@gmail.com			
 GIFTS GOLD · CROSS · REPAIRS · 십자가, 성상 · 성화, 묵주, 책 · 신발수선 · 금, 은, 주문제작 · 타-셔츠 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TOP 조경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남기원 요한 404-966-1919 2547 Old Rockbridge Road, Norcross, GA 30071	주보 광고 문의 kmccga.jubo@gmail.com			

순교자 주보



이탈렌티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2024년 6월 23일

NO.2257



주임신부 구동욱 미카엘 kmccga.pastor@gmail.com | 부주임신부 김성현 라파엘 raphaelkimsj@gmail.com
 사목회장 남현석 요셉 Email: josephnam2011@gmail.com Tel: 770.827.9987
 전화 770.455.1380 | 팩스 770.455.4262 | Email kmccga.office@gmail.com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URL <http://www.kmcc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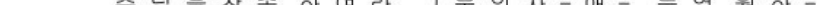
〈갈릴래아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그리스도〉 렘브란트, 캔버스에 유채, 이사벨라 스투어트 가드너 미술관, 미국

연중 제 12 주일

성가 입당: 4 봉헌: 215, 211 성체: 165 163 파견: 6

제1독서

욥기 38,18-11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화답송 

주님을 찬송 하여라, 그분의 자-애-느영원하-시-다.

제2독서

복음 ◎ 알렐루야.
찬화송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마르코 4:35-41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청년미사(토)	5:30pm
아침미사	8:00am
교종미사	10:00am
영어미사	11:45am

평일미사

화요일, 금요일 12:00pm
수요일, 목요일 7:30pm

유체관미사

성모신심미사 첫째주 토요일
12:00pm

- ◆ 고해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 성시간: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 사무실: 일요일 7:00am-3:00pm
월요일 휴무
화-토 10:00am-6:00pm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마르코 4, 35-41)

포기할 것 없다

배영길 베드로 신부

들어서지 말아야 했어.

포기하지 말아야 했어.

후회할 시간 없다.

고개를 들어,

허리를 펴고.

하늘에 희망을 두고,
일어나 나가면 되는 거다.

그럼 되는 거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찾는 데에는 언제나 불확실함이 있으며, 만일 너무나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사에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려는 일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의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계시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느님을 확실히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표지입니다”(『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안토니오 스파다로와의대담).

인간은 하느님의 신비를 완전히 알 수 없기에, 너무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자 노력할 뿐이고, 그 노력으로 숨겨진 의미를 아주 조금씩 깨달을 수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순과 고통, 예기하지 못한 사고, 소중한 이와 헤어짐 등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듯한 이유를 붙일 수야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자신의 생각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찾는 여정을 걸어갈 뿐입니다. 제1독서의 옴은 하느님의 뜻을 찾아 모험에 나섰습니다. 그의 눈으로는 무고한 의인의 고통, 아무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불행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저 하느님을 만나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이 고통의 이유와 의미를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결국 하느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느님의 답변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크심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크심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고통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인간 사고의 틀 안에 가두기보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고, 불확실성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럴 때 알 수 없는 고통의 신비를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최정훈 바오로 신부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연옥 영혼이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1

천주교 신자 중 ‘식사 전 기도’ 외우는 사람은 드물지 않지만, ‘식사 후 기도’까지 외우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식후 기도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살 아 있는 우리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데, 연옥 영혼들이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개신교와 달리 가톨릭교회는 한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연옥 혹은 지옥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은 지옥 가는데, 천국 가기에 애매하고, 지옥에 갈만하 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은 일종의 중간상태인 연옥에 간 다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개신교에서 연옥이 없다고 하는 신학적 근거는 인간의 죽음과 관련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인간은 하느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후 당신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창조된 존재 라 합니다. 개신교 신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영과 육 으로 이루어진 단일한 존재이고, 살아 있을 때 영과 육 이 완전히 하나이기에, 죽음 후에 영과 육 은 함께 소멸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죽음 후 영혼만 남지 않고, 죽는 순간 부활하거나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연옥이란 있을 수 없고, 가톨릭교회가 지어 낸 이야기라 합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단일체이고, 영과 육 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가톨릭교회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육(신)보다 더 근본적인 본 질이고, 육 신처럼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이 불멸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하느님께서 불멸하시 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느님과 함께한다면 불멸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천국은 물론 연옥의 존재도 가능합니다.

‘연옥’이란 단어가 처음 교회에 사용된 것은 12세기 전후이지만,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오래 전부터 있었 습니다. 모든 인간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은 모두 에게 구원될 가능성을 주셨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과 신앙을 원하십니다. 살아서는 물론 죽은 다음에도 회개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정화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느님 은총과 사랑을 알지만, 아직 온전히 정화되 지 못 한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정화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연옥에 대해 성경은 직접적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 있지만, 사도 바오로도 성경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의 것은 내가 가서 일러 주겠 습니다.”(1코린 11,34) 하느님의 가르침, 즉 계시는 성경과 성전(聖傳 Traditio)을 통해, 사도들과 교회의 가르침을 통 해 주어진다고 가톨릭교회는 가르칩니다. 연옥이란 ‘정화소’(淨化所, Purgatorium)입니다.

연옥의 불은 벌을 주는 지옥의 불과 다른 것인데, 깨끗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하느님 사랑의 불입니다. 정화시키는 하느님 사랑의 불 을 통해 정화되고 순수해져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다룬 연옥을 근거로 다음 주에는 연옥 영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출처: 서울 주보>

성경 속 특별한 인물들

정체성의 혼란을 가졌던 모세



십계명과 모세. 필리프 드 샤파뉴 그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우뚝 선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탈출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일가는 평화 로웠습니다. 그러나 훗날 요셉을 모르는 새 파라오가 등장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 자가 늘어나자 위협을 느끼고 탄압정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탈출 1장 참조)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모두 강에 던져 버리고, 딸은 살려주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최악의 상태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학살을 피해 모세를 바구니에 실어 강물에 띄워 보내고, 다행히 파라오의 딸이 발견한 모세는 이집트 궁정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모세는 완전한 이집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삶 안에서 점차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집트인인가 아니면 히브리인가?”라는 갈등 말이죠. 이는 외국 이민자들의 자녀 세대에서 잘 나타나는 현상 으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모세의 내면은 두 명의 어머니와 다른 민족성, 상이한 종교와 문화의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병리적인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써 왕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었 지만, 내면적으로는 고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히브 리인들이 바로 자신의 동족임을 알고 갈등하며 성장했 을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권력의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는 이방인인 자신의 처지를 인식했을 것입니다. 내적 인 갈등과 이중적인 가치관은 모세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었을 테고, 갈등으로 인한 불안을 억압하면서 살았 겠지요. 그러던 중 40세쯤 되었을 때 모세는 노예들을 감시하던 이집트 경비병과 시비가 붙어 그를 죽이고 광 야로 도망칩니다. 이 우연한 사건은 모세의 일생을 뒤 바꾸어 버렸습니다. 모세의 인생 여정과 드라마틱한 사 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수업 과정이 되었 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이 당신의 일꾼을 부르시고 쓰실 때는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 떼를 몰고 호렙산을 지나던 그는 하느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달려가죠. 그 때 하느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모 세는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고도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지만, 결국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 시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분명히 다혈질이고 불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위인 도 우리와 똑같이 부족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고 어떻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출처:서울주보>



소공동체 첫 반장 모임



망치회 장래들 및 바닥 보수 공사

보수공사를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해주신 망치회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망치회 김밥 & 컵라면 판매



성인 복사단 교육



동대회 정기 모임



故 정병순 안나님 장례 미사
지난 6월 13일(목) 故 정병순 (안나)님 장례 미사에
참석해 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6월 16일 (연중 제11주일)					
교중미사(10:00am)...	274명	주일헌금	\$4,436.00		
아침미사(8:00am)...	94명	교무금	\$7,970.00		
영어미사(11:45am)...	54명	감사헌금	\$ 100.00		
청년미사(5:30pm)...	47명	안젤라 펀드	\$.00		
미사참례 총	469명	성물방	\$205.00		

교무금 명단					
고근배(6)	김훈(5,6)	배지현(6)	유성복(6)	이치선(5)	태영호(6)
고영호(6)	남상우(3~7)	변성주(6)	윤성혁(5,6)	이홍규(6)	홍남식(6)
김성강(6)	민병선(6)	서재욱(6)	이광자(6)	전근섭(6)	홍영기(6,7)
김영철(6)	박근우(6)	석스테판(6)	이국진(5)	지혜정(6)	
김이애자(1~6)	박찬규(6)	심문영(6)	이덕자(5,6)	천병호(6)	
김춘자(5)	방영택(5,6)	오명혜(5,6)	이동현(6)	최동순(6)	
김현길(6)	배정울(6)	원용방(5)	이은주(6)	최철영(6)	

교무금 월 약정자							
강규상	김영홍	박근우	서미영	양경직	이경우	전근섭	한성인
강성태	김원봉	박남준	서상희	양경환	이동춘	전용희	한춘하
강용조	김일환	박남철	서용원	양국일	이복화	정승욱	한혜선
고창민	김주희	박두환	서재욱	양재준	이봉조	정용선	허민환
곽흥배	김진용	박미첼	서혁규	오경옥	이석균	정지윤	허성일
김 훈	김태규	박송자	석대진	오규형	이성철	정창래	홍동욱
김경숙	김향순	박영자	설재규	오상수	이수진	조보현	홍서훈
김남우	김현길	박재석	성정창	오현정	이승구	조성환	홍영기
김대용	김호수	박재영	소종선	왕복실	이종길	조소춘	
김루시아	김홍섭	박정미	손영덕	원용방	이창호	차영남	
김면기	김희연	박종흠	손철영	유경애	이준복	천병호	
김미자	나창섭	박찬규	송경자	유선아	이현두	최동순	
김미혜	남기원	박평하	송무남	유성열	이현옥	최문석	
김봉섭	남상우	방영택	송용덕	유영한	이홍규	최문영	
김상순	남현석	배광욱	송창률	유종현	이훈철	최양숙	
김성강	문명재	배정울	심충섭	윤석진	장민재	최영갑	
김세경	민병선	배정희	심호용	윤성진	장해선	최옥란	
김영길	민수종	백현숙	안금환	이건수	전 홍	최지남	
김영철	민주미	서동민	안승범				

교무금 새로 약정 하신 분							
강비호	김홍자	박영희	안용주	이동현	임재형	최철영	홍상진
강세진	도한익	박정원	오명혜	이수진	임창현	최혜민	
고영호	문명재	방남규	오재찬	이세철	장윤아	한규빈	
고창민	문병호	배진희	우장희	이은경	장해선	한규향	
고창영	문쌍국	서영범	유경애	이 완	차유경	한찬욱	
김덕자	문은숙	서정애	윤지영	이창욱	최규복	한현복	
김영배	민수종	석영길	이강연	이치선	최문영	허성우	
김용준	박경미	스티브조	이길종	이현옥	최승원	현무경	
김용학	박병호	심재숙	이동선	임용택	최제인	홍남식	

교무금 약정하신 분중에 신자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자번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AA 기금 납부 현황	
2024년 6월16일 (연중 제11주일)	
교구 할당액.....	\$ 62,000.00
달성률	43.48%
약정액	\$ 20,750.00
누계 납부액.....	\$ 26,962.00
금주 납부액.....	\$ 605.00

2023 AA 기금 납부자		
김상순	송기호	전근섭
김영철	유성복	정민주
나창섭	이은주	최인영

금주 후원금	
감사헌금	강월석
소성당 리모델링 기부금	마리에타 사랑구역

교무금/ AA 기금 약정/ 봉헌 안내

- 교무금 약정서를 사무실로 제출
- 교무금 내실 때 월 표시, 이름, 신자번호를 기재
- 2024년 AA기금 약정도 사무실에 문의
- 온라인 봉헌시 이름, 신자 번호, 봉헌 내역 기재
- 생미사, 연령미사 봉헌은 우편으로 미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봉사			
날짜	해설	독서	복사
6/22(토) 오후 5:30	이성규	이익준 이상아	김주환
6/23(일) 오전 8:00	황윤숙	한찬욱 한은열	박시은 박시현
6/23(일) 오전 10:00	김현숙	김연주 박성미	박재효 남소호 전지우
6/23(일) 오전 11:45	Sara Park	성리디아 정범진	양다현 하혜지
6/29(토) 오후 5:30	이익준	박민재 김주환	이성규
6/30(일) 오전 8:00	황윤숙	최인영 남승은	김아룬 홍지아
6/30(일) 오전 10:00	김현숙	이덕환 이혁륜	박시현 소현서 양다해
6/30(일) 오전 11:45	Derek Lee	Sara Park 하혜지	박시은 허수인

본당 캘린더	
6월 23일	• 뉴난 공소 미사
7월 14일	• 차타누가 공소 미사

26/27대 사목위원 이취임식

6월 23일 (일) 교중 미사중

제27대 사목위원

- 회 장: 이홍철 세바스티아노
- 부 회 장: 김상순 플로렌시오
- 부 회 장: 김유니스 비비안나
- 대내총무: 이승구 마르티노
- 대외총무: 김선홍 그레고리오
- 관리분과:
- 교육분과: 이혜원 벨라뎃타
- 구역분과: 왕일모 마카엘
- 사회복지분과: 서명지 카타리나
- 선교분과: 임혜수 헬레나
- 성모회장: 이경미 다이아나
- 전례분과: 조보현 프란치스코
- 청년분과: 오규형 사도요한
- 청년분과 위원: 배성호 올리오
- 친교분과: 심재영 안드레아
- 홍보분과: 김용준 로마노
- IT분과: 이동현 라파엘

재정위원회

- 위 원 장: 서상희 안토니오
- 부위원장: 성정창 폴렌시오
- 고 문: 이종길 아우구스티노
- 위 원: 김순정 바울리나 박종범 베르나르도 석대진 스테파노 이기상 치릴로

민들레회 안내 및 무공해 야채 판매

- 장소: 친교실
- 일시: 6월 23일 10미사 전후
- 판매야채: 호박, 오이, 토마토, 상추, 깻잎, 고추...
- 문의: 이남수 엠마 770-310-4546

성당에 필요한 기금 마련과 숨은 봉사를 하고자 새로운 여성 단체인 민들레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민들레회에서는 풍성한 계절을 맞이해서 교우분들의 도네이션을 받아 모두의 행복한 밥상이 되도록 싱싱한 무공해 야채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수익금은 소성당 공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오니 텃밭으로 농사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던우디 구역 점심 판매

- 일시: 6월 23일(일) | 장소: 친교실
- 메뉴: 혼합 미역국

2차 헌금

Peter's Pence

- 일시: 6월 29일(토)/ 30일(일)

패밀리미사 안내

- 6월과 7월은 가족미사가 없습니다.

피에타 성가대원 모집안내

하느님 찬미를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성가대원,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 문의: 오재찬 유스티노 770-990-2972

2024년도 로사리오 평생 대학 새학기 등록

- 등록 일시: 4월 14일부터
- 등록 장소: 친교실/성당 사무실
- 새학기 개강일: 2024년 5월 7일
- 문의: 박미첼 404-819-9227 서미영 아네스 404-610-0057

2024-2025학년도 대건 한국학교 등록

등록대상: Pre-K(만4세) ~ 12학년

수업기간: 8월10일~12월7일(16주간)

수업내용: 한국어, 한국문화/역사

특활수업: 미술, 태권도, 동요, 무용, 서예, 난타

문의: 노시현 네오미시아 678-677-3515 kmccga.DaegonKoreanSchool@gmail.com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 중에 계신 분들

김미영(인덕마리아)	이기산(스테파노)
김선옥(모니카)	이금숙(세실리아)
김원봉(대건 안드레아)	이수진(브렌다노)
김창명(루가)	장종순(도미니카)
류영래(세실리아)	정창래(방지거)
민병숙(라파엘라)	조갑득(마리아)
박덕자(빅토리아)	조경희(글라라)
박정자(데레사)	채종현(아오스당)
박출리(히아친타)	최대일(프레드릭)
박평하(요한)	최순례(아나타시아)
안정주(소피아)	James Almeida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24년 세례를 받으실 분들과 견진을 받으실 분들을 위해

성 루가 의료 봉사회 진료 안내

- 일시: 7월 7일(일) 11:30pm~1:30pm
- 장소: 소성당
- 진료 과목: 내과: 지승남 산부인과: 이길종 비뇨기과: 전홍 치과: 최예은 (전 연령 가능)

성루가의료 봉사회에서는 전화 예약도 받습니다. 진료에 참여해 주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과 자원 봉사자도 늘 환영입니다. 다음진료는 9월1일 일요일

- 문의: 신인균 임마누엘 770-853-3392

사무실 직원(Part Time) 채용 공고

- Excel, MS Office 사용 가능하신분
- Accounting 회계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
- 웹사이트 관리, 편집 경험자 우대
- 교구청과 영어로 소통 가능하신분
- 미국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분
- 문의: 사무실 770-455-1380

2024년 Youth summer camp 유스 섬머캠프

- 일시: 7/18(Thu) ~ 7/21(Sun)
- 장소: Pine Eden Camp site Hamilton, GA
- 대상: Rising 9th - Seniors
- 참가비: Early registration(5/12-6/1) \$185 Regular registration (6/2~) \$200
- 문의: Stella Kim 679-979-8145

2024 KMCC VBS Vacation Bible School

Bring your friend !!

대상: PreK - Rising 6th(age 4 or older as of August 31)

일시: 7/26(Fri)-7/28(Sun) 7/26(Fri) 5pm-8pm, Dinner included 7/27(Sat) 2pm-5pm Snack included 7/28(Sun) 11:45am(Mass)-5pm, Lunch included

신청비: First child \$40, Sibling \$35

우선등록 마감 : 6/30(Sun)

장소: KMCC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문의: 정지윤 Cecilia (VBS coordinator) 408-878-5426 Cjjung@gmail.com

PROMISE TO PROTECT



PLEDGE TO HEAL

도움과 치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드리기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애타는 대교구는 학대 또는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합니다.

Archdiocesan 24-hour Abuse Reporting hotline: 1-888-437-0764

THE ROMAN CATHOLIC ARCHDIOCESE OF ATLANTA

Georgi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ivision of Family and Child Services (DFCS): 1-855-GA CHILD (+1 855-422-4453)